



2023년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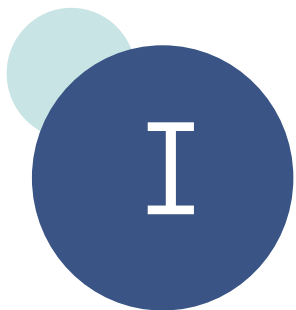
#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및 주요국 제도와의 비교

---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  
임 건 태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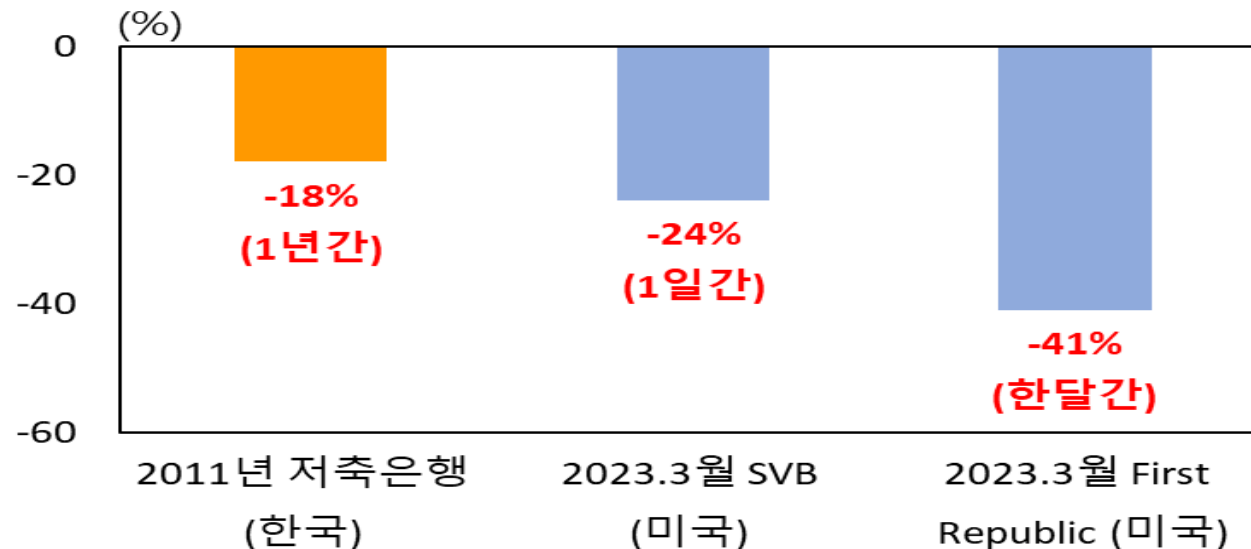
- **I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내용 및 목적**
- **II 주요국 중앙은행의 상설 대출제도 발전 배경**
- **III 한국은행 대출제도와 주요국 대출제도의 차이**
- **IV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중장기 개편방향 및 기대효과**



#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내용 및 목적

- ◇ SVB 사태는 금융의 디지털화로 **뱅크런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시 대응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
- 우리나라도 금융의 디지털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 및 활용도가 높은 만큼 뱅크런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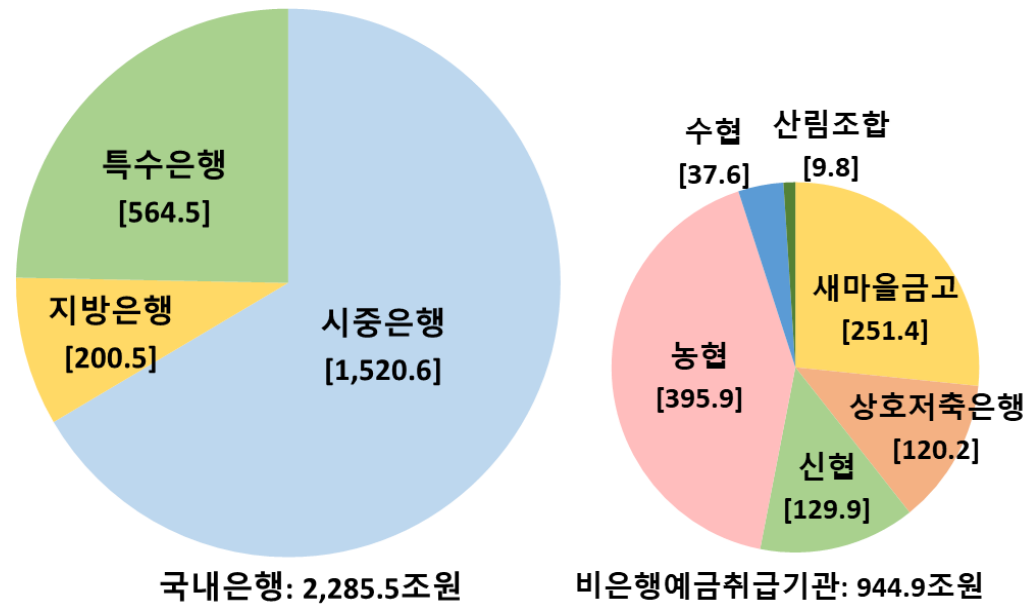
### 주요 뱅크런 발생시 예금 감소폭 사례



◇ 한국은행의 기존 상설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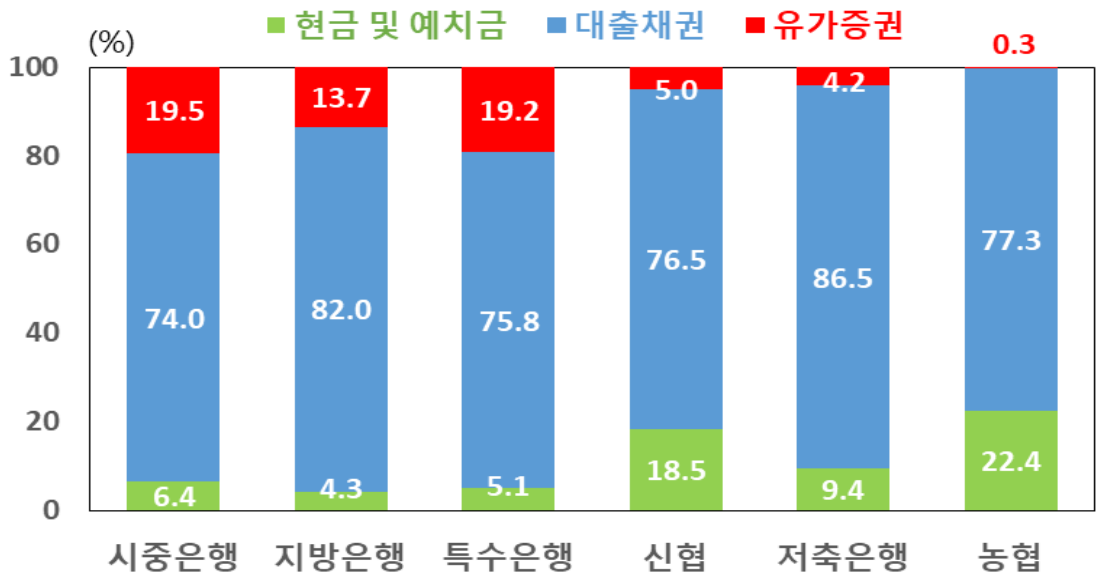
-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 유동성 공급 효과가 제한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제도적 요인으로 유동성 지원이 제약

예금취급기관별 수신 규모



주 : 1) 2022년말 기준, 인터넷 전문은행은 시중은행에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각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은행 및 주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산 구성



주 : 1) 2022년말 기준, 인터넷 전문은행은 시중은행에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 ◇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안전판 역할 강화를 위해 대출제도를 개편(23.7월)

- 은행 : ① 상설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 **금리 인하** 및 **만기 확대**[한은법 제64조]

(기준금리+100bp → 기준금리+50bp, 최대 1개월 → 최대 3개월)

②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 **적격담보 범위 확대**[한은법 제64조]

③ **긴급 상황**에서 **대출적격담보에 대출채권을 추가**할 수 있도록 **추진**(1년 내외 소요)  
[한은법 제65조에 따른 금통위의 임시적격성 부여]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① **위기시** 각 **중앙회**를 통한 **유동성 지원방안 강구**

[한은법 제80조의 상황요건 하에서 금통위 의결을 거쳐 제한적으로 가능]

### <참고: 대출제도 관련 『한국은행법』 조문>

####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상황요건 / 대상 / 담보) 평시 금융기관, 시장성증권 담보

####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상황요건 / 대상 / 담보)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한 금융기관,  
임시적격성 부여 담보

(조건) 위원 4명 이상의 찬성

####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상황요건 / 대상)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영리기업 대상

(조건) 위원 4명 이상의 찬성

◇ 금번 제도개편을 통해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안정**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은행 : 자금조정대출 이용시 적격담보 확대를 통한 대출 가용자원 증대와 필요시 만기연장을 허용함으로써 중앙은행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위기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 <자금조정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인식>

■ 개편 전 은행의 자금조정대출 **이용 빈도는 제한적인 상황**

- 만기 1영업일의 초단기 자금조달에 가산금리(+100bp)와 높은 담보조건(고유동성 증권 한정)이 요구됨에 따라 자금조정대출 이용시 '단기금융시장의 자금조달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는 데 일부 기인



◇ 다만, 제도운영 과정에서 배저트 원칙\*(Bagehot's Rule)을 견지하여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중앙은행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

\* ① 지불 능력이 있는 금융기관에 ② 무제한으로 대출을 공급하되 ③ 건전한 담보와 ④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중앙은행이 신용 위험을 줄이고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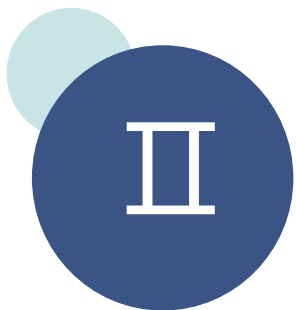
- 기준금리 + 50bp의 벌칙성 금리, 담보자산별 적정 헤어컷을 설정하여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배저트 원칙 관련 최근의 논의>

■ 최근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전통적인 배저트 원칙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 금융시장·기관간 연계성 증대 등으로 중앙은행이 지급불능/유동성 문제를 구분하는 데 제약

- 보유자산 급매(fire sell)로 단순 유동성 문제를 겪던 금융기관이 지급불능에 빠질 수 있음



## 주요국 중앙은행의 상설 대출제도 발전 배경

◇ 주요국 중앙은행은 상설대출제도(대기성 여신)와 공개시장운영 등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

주요국 중앙은행의 주요 통화정책수단

구 분			미 연준	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유동성 공급	대기성 여신 (Standing Lending Facilities)		Discount Window Primary Credit	Marginal Lending Facility	Operational Standing Lending Facility	Complimentary Lending Facility
	공개시장 운영 (OMO)	RP매입	Standing Repo Facility	Main Refinancing Operations	Short Term Repo	√ (특정명칭없음)
		Outright Purchase	√	√	√	√
유동성 흡수	대기성 수신 (Standing deposit Facilities)		N/A	Deposit Facility	Operational Standing Deposit Facility	Complimentary Deposit Facility
	지준부리		√	√	√	√
	공개시장운영 (OMO)		ON RRP Facility	—	—	—

주 : 1) 4개 중앙은행 모두 floor system을 채택중. 음영은 floor 적용 금리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은행의 일시적 유동성(지준, reserve balances) 부족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활용

- 유동성 공급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주요 선진국에서 꾸준히 개선·개발
- 미국, 유로지역, 영국 등 선진국은 GFC이후 양적완화(QE)를 기점으로 유동성 잉여로 전환

###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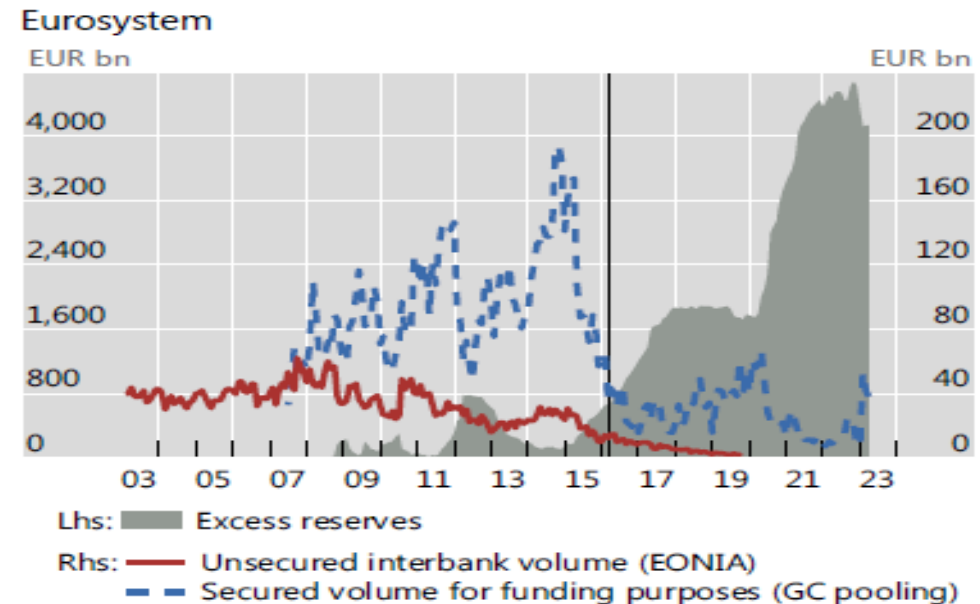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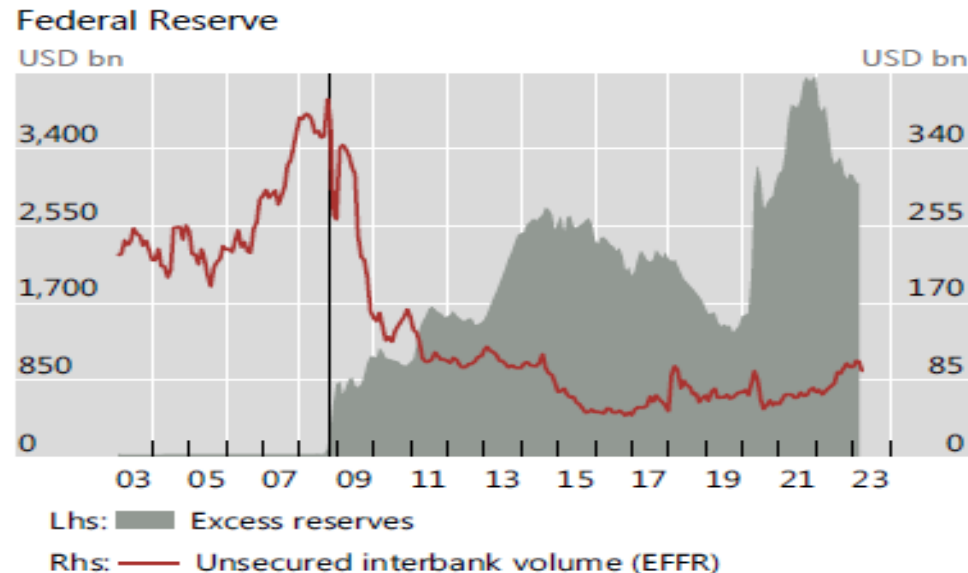
- 유동성 부족: 「은행시스템의 지준 수요 > 중앙은행의 지준 공급」인 상태
-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확대의 주 원인이 부채일 때(liability-driven) 유동성 부족, 자산일 때(asset-driven) 유동성 잉여

자 산		부 채	
국내채권(국채 등)			
정부 (순)대출		화폐발행	
외환보유액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ARS(=floor system) 운용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공급 역할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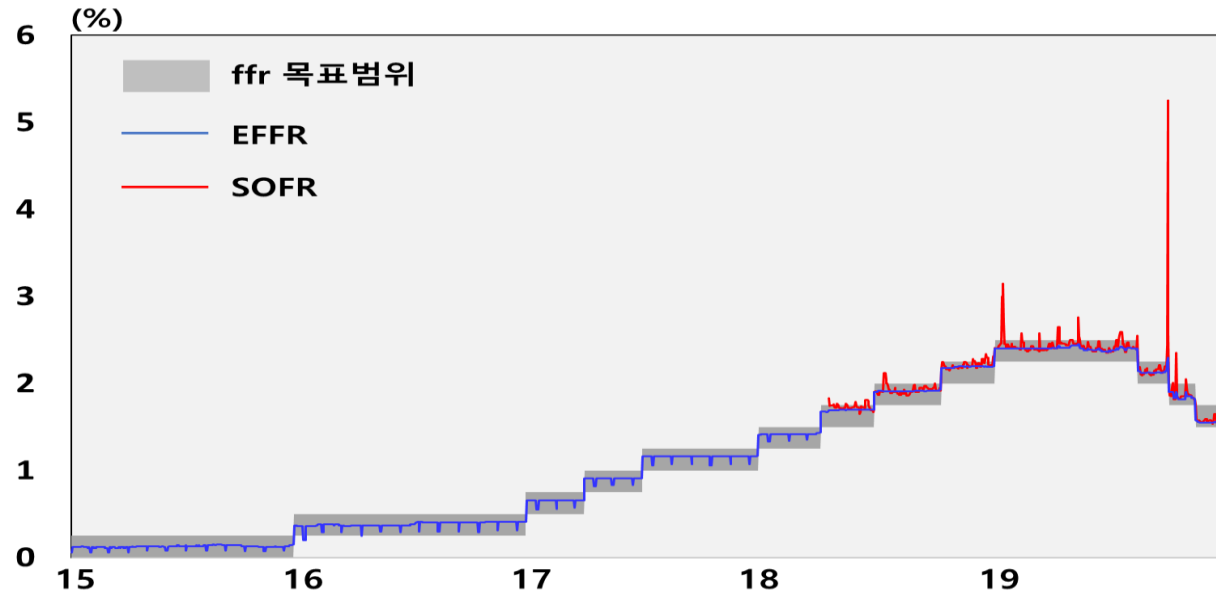
- ARS(Ample Reserve System) 하에서 익일물 은행간시장(콜시장) 위축으로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 증대

### 미 연준 및 유로시스템의 초과지준과 은행간시장 거래 금액



- ◇ 또한 양적긴축(QT)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유동성 수요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활용
- 장기간의 ARS 운영으로 중앙은행의 지준수요 예측력이 저하된 가운데, 각종 건전성 규제(LCR 규제 등)도 지준 수요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대
  - 미 연준은 2019.9월 지준수요 부족으로 갑작스런 단기금리 급등을 경험한 후 1차 QT를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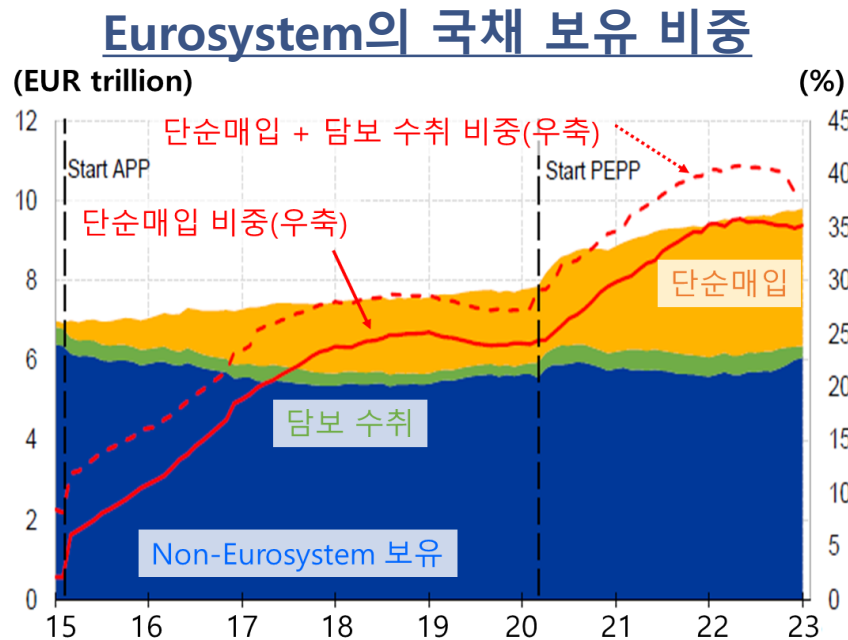
미국 EFFR 및 SO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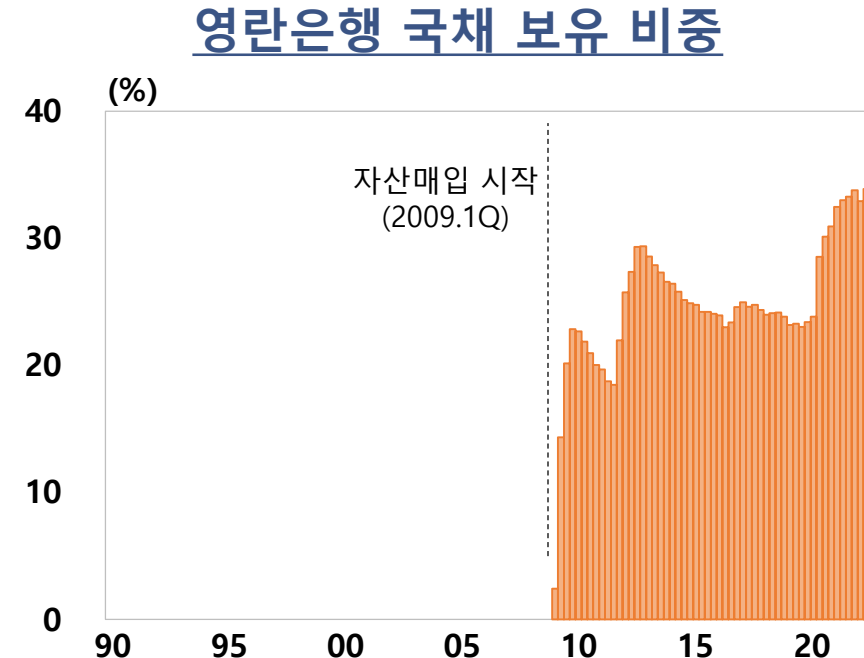
자료: FRED

### ◇ 금융불안에 대응한 최종대부자 기능의 1차적 수단으로 활용

- 주요국 중앙은행은 개별 위기에 대응한 다양한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접근성 · 가용성이 높은 상설 대출제도는 1차 안전판 역할을 수행
- 가산금리 폐지 및 만기 연장(미 연준), 증권 대여제도 도입(ECB, 영란은행) 도입 등으로 효용성 제고



자료 : Eurosystem, CSDB



자료 : 영란은행



## 한국은행 대출제도와 주요국 대출제도의 차이(한계)



- ◇ **주요국은 상설대출제도를 통해 평시에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증권사**(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
- 한국은행은 한은법 제80조에 따라 특정 상황요건 하에서 금통위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

상설 대출제도 대상기관 단순비교

구 분		한국은행	미 연준	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예금취급기관				√ <sup>1)</sup>		
	상업은행	√	√	-	√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신용협동기구, 저축은행 등)	-	√	-	√	-
기타 금융기관			-	- 시스템적투자회사 (대형 증권사)	- Broker-dealers - CCPs - ICSDs	- 증권회사 - 증권금융회사 - 자금중개회사

주 : 1) ECB는 회원국간 금융기관 분류체계 및 명칭이 달라 세부 분류가 제한

◇ **주요국은 한국은행에 비해 적격 시장성자산의 범위가 넓고 비시장성자산(대출채권)도 포함**

- 한국은행은 특정 상황 하에서만 은행의 대출채권을 적격담보로 인정 가능[한은법 제65조]

상설 대출제도 주요 적격담보 단순비교

구 분		한국은행	미 연준	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시장성 자산	공공부문 발행	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한국은행	정부, 지방정부 국제기구, GSEs	정부, 지방정부 국제기구, Agency	정부, 정부기관 국제기구, 중앙은행	정부, 지방정부 국제기구, 공공기관
	금융부문 발행	주금공 MBS 은행채	ABCP, ABS CD, CDO, CLO MBS, 회사채	ABS Covered Bond, 신용기관	ABCP, ABS Covered Bond, MBS	ABCP, ABS, CP 부동산투자회사 주택금융기관
	비금융 부문발행	우량 회사채 신용증권	CP 회사채	비금융기관	CP 회사채	CP 회사채
비시장성 자산 (대출채권)		X	지방정부, 모기지론 상업·산업 상업용부동산	공공부문 비금융기업 국제기구	모기지론, 소비자 상업용부동산 비금융기업	정부, 지방정부 기업 부동산투자회사

◇ **주요국**은 상설대출제도의 **대출조건**을 한국은행에 비해 **완화적**으로 설정

- 주요국에 비해 높은 가산금리는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방지에 도움이 되지만 위기시 대기성 여신제도의 효용성을 일부 제약할 우려

상설 대출제도 대출조건 비교

구 분	한국은행	미 연준	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명 칭	자금조정대출	Discount Window Primary Credit	Marginal Lending Facility	Operational Standing Lending Facility	Complimentary Lending Facility
금 리	기준금리+50bp (=수신금리 +100bp)	ffr 목표범위 상단 (=수신금리 +10~20bp)	MRO금리+25bp (=수신금리 +75bp)	Bank Rate+25bp (=수신금리 +25~50bp)	기본여신금리 (=수신금리 +20~40bp)
만 기	1일	1~90일	1일	1일	1일



##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중장기 개편방향 및 기대효과

### ◇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

- ①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상설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

\* 도덕적해이 최소화를 위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지급능력이 있는 기관'(solvent but illiquid firms)에 한정하여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

- 특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감독당국과 한국은행간 수시 정보공유를 강화

- ② 금융기관의 담보납입 여력 제고를 위해 특정 상황에서만 활용 가능한 대출채권의 인정 요건을 완화

- 중장기적으로 은행 뿐 아니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부여

◇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계속)

③ 위기시 대출채권의 신속한 활용을 위해 pre-positioning 등 관련 제도를 정비

### <영란은행의 pre-positioning>

- 대출채권을 상설대출제도의 적격담보로 인정할 경우 유동성 공급 여력을 늘릴 수 있으나, 적정가치 산정, 신용도 평가, 법적 절차 등 행정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
- 영란은행은 대출채권의 가치 등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필요시 신속한 담보 수취를 도모하는 pre-positioning 제도\*를 운영중

\* 대출채권 뿐만 아니라 고품질 자산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출채권에 대해서만 pre-positioning을 의무화

- 대상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 및 법적검토 등을 통해 대출채권의 리스크, 가치 등을 평가하고 적절한 헤어컷 비율을 사전에 설정

- ◇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계속)
  - ④ 상설대출제도 이용기관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최종대부자 기능 강화에 따른 부작용(한국은행의 손실가능성, 도덕적해이 등)을 최소화
- ◇ 일련의 노력은 1) 금융안정 제고뿐만 아니라 2) 금융기관의 담보자산관리체계 효율화, 3) 개별 담보채권 시장 활성화, 4) 위기대응능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Thank You

---